



KIA 신종길이가 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전 7번 타자로 나와 1회초 2사 만루 기회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화끈한 방망이로 1위 탈환

넥센전 장단 15안타 '타격쇼' ... 13-9 승리

소사 8실점 하고도 4승 ... 앤서니 10세이브



'호랑이 군단'이 화끈한 타격쇼를 펼치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KIA 타이거즈가 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13-9로 승리를 거뒀다.

앞선 3일 양현종의 완투에도 불구하고 0-1패를 기록했던 KIA는 주말 2경기에서 최희섭의 홈런포 2개를 포함 27개의 안타로 2연승에 성공, 넥센을 끌어내리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팀 선발로 나선 KIA 소사와 넥센 나이트의 기대 이하의 피칭으로 경기는 타격전으로 전개됐다.

KIA가 1회 2사에서 이범호의 몸에 맞는 볼을 시작으로 나지완의 우전안타와 최희섭의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다. 김상현의 밀어내기 볼넷에 이어 신종길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3-0이 됐다.

3회에는 소사가 자존심을 구겼다. 1·2회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소사가 4-0으로 앞선 3회에도 유한준에게 선두타자 볼넷을 허용했다.

서건창의 안타에 이어 장기영의 볼넷이 더해지면서 1사 만루, 소사가 이택근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박병호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을 얻어맞으면서 승부가 4-5로 뒤집혔다.

올 시즌 1.95의 방어율로 무패행진을 벌이던 나이트(4승)가 먼저 무너졌다.

4회 이용규와 김선빈의 연속 볼넷에 이어 이범호의 희생번트가 성공하면서 KIA가 1사 2·3루를 만들었다. 이후 나지완과 최희섭의 연속안타가 터지면서 KIA가 6-5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넥센이 나이트를 내리고 이정훈을 올렸지만 2사에서 신종길·차일목·이용규가 나란히 안타를 때려내며 점수는 10-5까지 벌어졌다.

소사는 타자들의 만점 지원 속에 속스리운 4승을 챙겼다.

4회 처음으로 삼자범퇴를 기록한 소사가 5회 서건창과 장기영의 안타로 자초한 1사 1·3루에서 박병호에게 연타석 스리런을 허용했다. 10-8까지 넥센이 따라붙었지만

KIA가 9회까지 리드를 유지하면서 소사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이날 경기의 승리투수가 된 소사의 기록은 5이닝 8피안타(2홈런) 4사사구 1탈삼진 8실점. 시즌 방어율은 5.58까지 뛰어올랐다.

앤서니는 두 경기 연속 뒀던 단속에 나서며 10번째 세이브를 채웠다. 앤서니는 13-9로 앞선 8회, 2사 1·2루에서 등판해 장기영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9회 2사에서 강정호에게 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2루수 앞 땅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한편 앞선 4일에는 에이스 윤석민의 극적인 등판이 이뤄졌다.

어제 봉중으로 재활을 해왔던 윤석민은 4-3의 1점차 승부가 벌어지던 4회 2사 만루에서 올 시즌 첫 출격에 나섰다.

초구에 149km의 강속구를 쏘아넣은 윤석민은 이택근을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예이스의 귀환을 알렸다.

◇ 5일 목동구장

KIA	3	0	1	6	0	0	1	2	0	-	13
넥센	0	0	5	0	3	0	1	0	0	-	9

■ 프로야구 중견수위 (5월 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26	17	8	1	0.680	2승
2 넥센	26	17	9	0	0.654	2패
3 두산	26	16	9	1	0.640	2승
4 삼성	26	16	10	0	0.615	3승
5 LG	27	13	14	0	0.481	2패
6 SK	24	11	12	1	0.478	2승
7 롯데	26	11	14	1	0.440	3패
8 NC	24	6	17	1	0.261	3승
9 한화	27	6	20	1	0.231	2패

윤석민은 7회 이택근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3.2이닝을 3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티켓 파워 ... 9경기 연속 만원 관중

KIA 타이거즈의 티켓 파워가 불을 뿜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5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목동경기까지 9경기 연속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했다.

어린이날이었던 5일 KIA와 넥센의 1위 싸움이 벌어진 목동구장에는 1만 2500명의 관중이 몰리면서 올 시즌 목동구장 첫 경기 연속 매진기록이 작성됐다.

KIA는 앞서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에서도 2만 7000석을 가득 채우며 평일 3경기 연속 매진쇼를 벌였다. 1일 경기에서는 20분 만에 표가 팔려 나가면서 두산의 최단시간 매진 기록도 작성했다.

강팀들과의 빅매치와 화끈해진 KIA의 팀 컬러가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삼성전은 우승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라이벌전이었으나, 두산과의 잠실경기는 1위를 놓고 벌인 선두권 팀의 맞대결이었다. 주말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양팀이 선두타자를 놓고 시소 게임을 벌이면서 야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호쾌한 타격을 통한 공격 야구도 흥행의 한 축이다. KIA는 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영봉패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지난 6경기에서 장단 65안타(3홈런)로 38점(평균득점 6.3)을 만드는 등 화력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면서 팬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엠블럼 첫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얼굴'인 공식 엠블럼(사진)이 지난 3일 첫선을 보였다.

최초 공개된 평창 올림픽 엠블럼은 한글 '평창'에서 '평'의 초성인 'ㅍ'과 '창'의 초성인 'ㅊ'을 모티브로 형상화했다. 'ㅍ'은 동양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바탕을 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람들이 한데 어울린 열린 광장의 의미를 담았다. 'ㅊ'은 눈과 얼음, 동계스포츠 스타(선수)들의 축제를 표현했다.

색상은 올림픽 오프니컬색과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활용했다.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 엠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평창에서 펼쳐지는 눈



(설상)과 얼음(빙상), 동계스포츠 선수와 지구촌 사람들의 어울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전국체전 야구 1차 예선 우승

광주일고가 전국체전 1차 예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3~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차 예선 대회에서 2승을 거두며 우승팀이 됐다.

동성고는 8-7로 꺾은 광주일고는 진흥고와의 승부에서는 9-2, 8회 콜드승을 거뒀다. 광주일고는 오는 6월 4일부터 열리는 2차

예선대회 우승팀과 대결을 벌여 전국체전 본선 진출권을 가리게 된다. 2차 예선에서도 광주일고가 우승을 하면 자동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한편 광주시야구협회는 이번 1차 예선을 치른 고등부 세 팀에게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1회 선두 타자 초구 홈런... 시즌 5호



추신수(31·신시내터 레즈)가 시즌 5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1회 컵스의 우완 선발 투수 제프

사마자의 초구를 밀어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선두 타자 홈런을 터뜨렸다.

전날 시즌 13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한 추신수는 감을 살려 이날 첫 타석에서 바깥쪽에 꽂 찬 시속 151km짜리 강속구를 베풀듯이 밀어 총알처럼 뺏어가는 홈런을 쳤다.

하지만 4타수 1안타에 그쳐 시즌 타율은 0.330에서 0.327로 약간 떨어졌다. 출루율도 0.467에서 0.465로 소폭 하락했다.

/연합뉴스